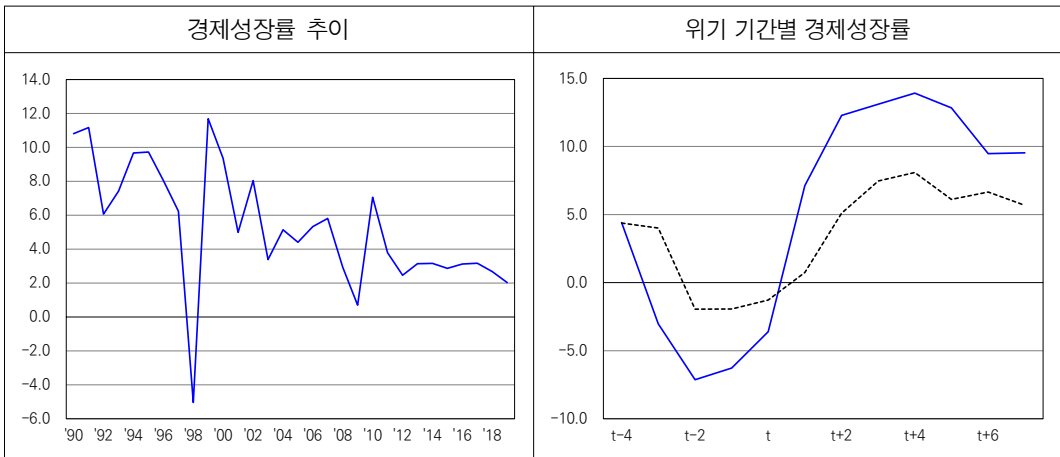


경제위기 이후 경제성장률 변동요인 분해

- 본고는 경제위기 이후 경기 회복기에 경제성장률이 어떤 요인에 의해 변동하였는지를 고용 측면에서의 요인 분해를 통해 살펴보고자 함.
 - 과거 우리 경제는 경기침체와 호황을 수차례 경험해 왔는데, 여기서는 1990년대 이후 가장 큰 두 번의 위기인 1997~1998년 외환위기와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대상으로 함.
 - 추세적으로는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양상이지만, 위기 전후 기간에서 보면 경제위기 충격으로 국내 경기상황이 크게 악화된 이후 비교적 빠른 기간 내에 회복기에 진입하여 상당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보임.

[그림 1] 한국 경제성장률¹⁾ 추이

(단위 : %, 전년동기대비)



주 : 1) 비농전산업 GDP(2015=100)이며 최측은 연간, 우측은 분기 기준임.
 2) 우측 그림에서 실선은 외환위기, 점선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 경제성장률을 나타냄.
 3) t기는 위기 발생 이후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시점으로 각각 1998년 4분기, 2009년 2분기임.
 4)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시점은 그림에 제시된 전년동기대비 경제성장률 외에도 기준순환일(경기순환변동 과정에서 국면이 전환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제7순환기는 1998년 8월, 제10순환기는 2009년 2월 저점을 시작으로 확장국면에 접어든 점 등을 고려해 설정함.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 실질 GDP 성장률 요인 분해¹⁾에 의하면, 경제위기를 지나면서 경제가 성장함에 있어 노동생산성이 주요한 요인이었던 것으로 보임.

- 경기회복이 시작된 시점 이전 시기를 보면 두 번의 위기에서 모두 노동생산성은 경제성장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으나, 노동 투입이 큰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함에 따라 기간 중 경제성장률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차이점이 있다면 외환위기에는 고용률 증가율이 크게 하락한 데 비해, 금융위기에는 근로시간 증가율이 크게 하락함.
- 경기회복이 시작된 시점 이후 시기를 보면, 위기로 인해 조정되었던 노동 투입이 다시 회복되고, 노동생산성이 상당한 수준의 증가율을 유지하면서 회복 시점 이전보다 경제성장률이 큰폭으로 상승함.

〈표 1〉 경제성장률 변동요인 분해

(기간중 평균, %, %p)

	외환위기			금융위기		
	1997년 4분기 ~1998년 3분기	1998년 4분기 ~2000년 3분기	차이	2008년 2분기 ~2009년 1분기	2009년 2분기 ~2011년 1분기	차이
GDP 성장률	-3.0	9.3	12.3	1.1	4.8	3.7
노동생산성	4.7	6.4	1.6	4.3	3.5	-0.8
노동투입	-7.5	2.8	10.3	-3.0	1.4	4.5
1인당 근로시간	-2.2	0.4	2.6	-3.4	0.4	3.8
고용률	-6.4	1.6	8.0	-0.7	0.1	0.7
생산가능인구	1.2	0.8	-0.4	1.1	1.0	-0.1

주 : 1) 실질 GDP는 비농전산업 기준(2015=100)이고 노동생산성은 시간당 노동생산성임.

2) 1997~1999년 취업자는 6차, 2000년 취업자는 8차, 2008~2011년 취업자는 9차 비농전산업 기준이고, 생산가능인구는 15~64세 기준임.

3)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근로시간은 주당평균근로시간이고, 월평균 근로시간 = 주평균근로시간*30.4/7 을 이용함.

4) 위기 발생 이후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시점(1998년 4분기, 2009년 2분기)을 기준으로 이전 4분기, 이후 8분기를 대상으로 함.

5) 반올림으로 인해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1) GDP는 다음과 같이 고용 측면에서 분해가 가능.

$$Y \equiv \frac{Y}{(E \times H)} \times (E \times H) \equiv \frac{Y}{(E \times H)} \times \frac{(E \times H)}{E} \times \frac{E}{L} \times L \rightarrow g_Y \cong g_{LP} + g_{EH} \cong g_{LP} + g_H + g_{er} + g_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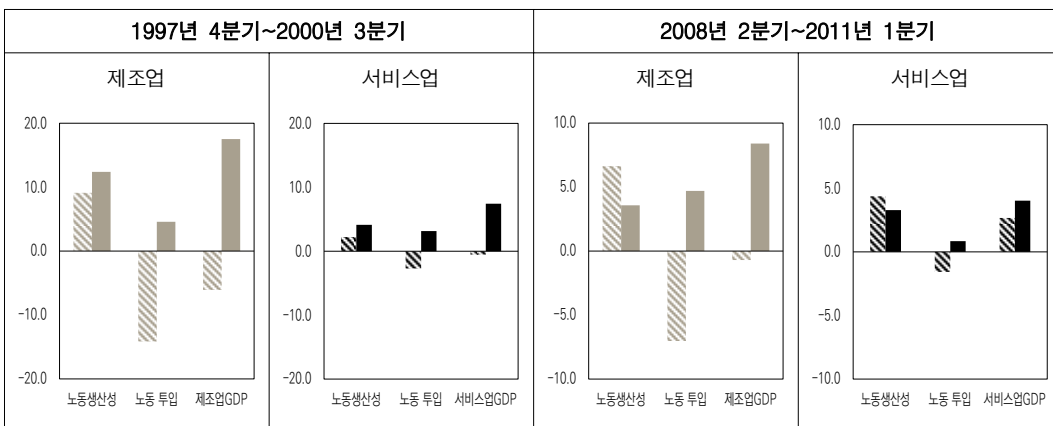
(GDP성장률 ≅ (시간당)노동생산성 증가율+노동투입증가율 ≅ (시간당)노동생산성 증가율 + 근로시간증가율 + 고용률 증가율 + 생산가능인구 증가율)

단, Y는 GDP, E는 취업자 수, H는 1인당 근로시간, L은 생산가능인구, LP는 노동생산성, er은 고용률이며 g_X 는 X의 증가율을 의미함.

- 다만, 외환위기 이후 회복기에 노동생산성이 향상된 반면, 금융위기 이후는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위기 이전보다 둔화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외환위기 이후 회복기에 비해서는 금융위기 이후의 경제성장세가 이전보다 크게 확대되지는 못한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임.
- 산업부문별로 실질 GDP 성장률을 분해해 보면,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산업별 성장 변동에 기여하는 고용부문 요인에 차이점이 발견됨.
 - 외환위기 기간의 경우,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성장률 변동요인의 패턴이 비농전산업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음. 회복기에 접어든 이후로 고용투입이 회복되고 두 부문에서 모두 노동생산성이 이전보다 향상되면서 성장을 이끌었음.
 - 금융위기 기간의 경우는, 위기 기간을 지나면서 경기가 회복기에 접어든 이후 제조업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이전보다 크게 둔화되었음. 또한 제조업 성장이 노동생산성에 의해 견인되었던 외환위기 회복시기와는 달리 노동투입의 증가가 더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나타남. 한편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도 소폭 둔화되나 그럼에도 회복기의 서비스업 성장은 노동생산성에 의해 주도되었던 것으로 나타남.

[그림 2] 산업별 경제성장률 분해

(기간중 평균, %)



- 주 : 1) 금색 빗금과 검정색 빗금은 경기회복 시점 이전 4분기, 금색과 검정색은 경기회복 시점 이후 8분기임.
 2) 경제성장률은 산업별 경제성장률, 취업자는 산업별 취업자 수, 근로시간은 산업별 근로시간을 이용함.
 3) 서비스업 GDP는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정보통신업, 사업서비스업(전문, 과학 및 기술관련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의료,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문화 및 기타 서비스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기타 서비스업)을 포함함.
 4) 반올림으로 인해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이기쁨, 동향분석실 연구원)